

# 완도산 청정 해조류 서울 300곳 학교급식 납품

## 가공업체 2곳 공급업체 선정...내년부터 경기까지 확대

완도산 친환경 해조류가 오늘(1일)부터 서울지역 학교에 일제히 공급된다. 완도군은 서울에 이어 내년부터 경기도지역 학교에도 해조류 납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급식재료 납품을 맡고 있는 서울

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수산물 학교급식 산지공급업체 공모에 완도산 수산물가공업체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00여개 학교가 완도산 전복과 다시마, 김, 미역을 식재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내년부터 학교급식을 실

시중인 서울시내 769개교의 78%에 해당하는 600여개에 급식재료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도 학교급식재료 납품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완도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완도산 해조류의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성검사,

중금속 잔류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한 해조류는 학생들의 두뇌발달과 체력증진에 효과가 크다”며 “더구나 완도산 해조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전환을 가져와 미래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어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해조류 생산량 45%를

생산하고 있는 완도군은 2014년 4월 11일부터 한 달 간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소재로 하여 박람회 개최한다.

완도군은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박람회 홍보, 자문은 물론 국내 식품, 화장품, 의약품 회사 박람회 참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고용률 70% 달성 민간 참여 절실”

### 목포노동고용지청 전남 맞춤형 일자리 포럼

목포노동고용지청(지청장 황선범)은 31일 “지난 29일 목포 삼호 현대호텔에서 지역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남지역 맞춤형 일자리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자체와 노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순남 목포대 교수가 ‘고용률 70% 달성과 전남고용거버넌스 구축방향’을 강의하고 참여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토론이 이뤄졌다.

포럼에서 황선범 목포고용지청장

은 “전남지역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지청 뿐아니라 지역민사회 및 고용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나정수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과장은 “지역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전남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오늘부터 이틀간

### 신안 새우젓축제

2013년 신안 새우젓축제가 오늘(1일)부터 이틀간 신안군 지도읍 신안젓갈타운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사물놀이를 비롯해 7080라이브콘서트, 초청가수공연, 대북공연과 새우젓 감자잡자기, 새우젓 김치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신안 새우젓은 임자·비금·칠발도 해역에서 230여척이 조업, 매년 1만 3000여톤이 생산되며, 연간 약 46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은 첫새우의 주 생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안의 천일염으로 짠은 즉식 선상에서 직접 담그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새우젓은 잡는 시기에 따라 오젓과 육젓, 추젓으로 나뉘며, 음력 6월에 잡힌 새우로 만든 육젓을 으뜸으로 친다.

축제가 열리는 신안 젓갈타운은 신안군 지도읍에 총 100여점의 사업비로 젓갈판매장 20동과 저장시설, 젓갈홍보전시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에 완공된 바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진도 창유항 건설 기공식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창유항 건설사업 기공식이 지난 28일 열렸다. 146억원이 투입되는 창유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2년 완공되며 방파제 270m, 물량장 190m 등 어항시설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도=백형기기자 hypark@

## 영광 민물장어주식회사 출범 어업인 15명 주주 참여

전남도는 지난 31일 “지난 30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영광센터 회의실에서 영광지역 민물장어 양식 어업인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어업회사법인 영광민물장어주식회사’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영광민물장어주식회사는 영광지역 민물장어 생산 어업인 15명이 주주로 참여, 13억원의 출자해 민물장어 가공·유통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설립된 어업주식회사는 장흥 무산김 등 8개가 설립됐으며,

한편 영광군에는 관내 55개소의 양만장에서 연간 2700여t의 민물장어를 생산해 8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전국의 최대 민물장어 양식지역이다. 전남지역 민물장어 양식어업은 2012년 기준 2598t(981억 원)을 생산해 전국(4365t·1724억 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전남의 내수면 어업을 대표하는 양식품종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전북

# ‘푸른 눈’의 소리꾼들 판소리 무대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내달 6일부터 5일간 ‘케이뮤직프로젝트’ 개최

‘푸른 눈’을 가진 소리꾼들이 판소리 무대에 오른다.

전주에 자리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31일 “다음달 6일부터 5일간 우리 소리를 세계화하기 위해 마련한 페스티벌인 ‘케이뮤직프로젝트(K-Music Projec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케이뮤직프로젝트는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일어난 한류 속에서 우리 소리 음악이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세계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지 가능해 보는 축제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유럽의 소리꾼을 발굴해 초청 공연을 여는 ‘유러피안 소리꾼’이다.

“유러피안 소리꾼”에서는 유럽의 소리꾼과 퓨전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유럽의 소리꾼 3명의 판소리와 민요, 그리고 퓨전국악팀 ‘소나기프로젝트’의 아름다운 공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프랑스 출신 마티유 로쉬바르제와 벨기에 출신 주말리 빌덕, 카미 시합 등은 유럽에서 음악가이자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판소리 공연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

의 판소리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의 재즈 연주자와 판소리가 만나는 ‘아르시켈 판소리’와 너버블 퍼포먼스 ‘비트’, 오정혜 명창의 ‘소리아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인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는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붐 속에서 진정한 우리 소리음악이 어떤 평가를 받는 지 알아보기 위해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면서 “동서양에서 음악가이자 배우로 활발한 활동 음악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에 조경수 전시판매장 개장

정읍시와 나무생산자단체미협동조합(대표 김종관)이 지난 30일 조경수 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 <사진> 조경수 전시판매장은 전시판매장 4824㎡, 관리동 2동 528㎡ 등의 규모로, 조경수 판매는 물론 소비자와 조경수 농가의 매매 알선 등을 하게 된다.

특히 150종 300여 그루가 식재된 전시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400여 수종을 식재해 수목학습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것이 시와 조합의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투명한 직거래를 위해 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며 “분재 조경수 전시장 운영, 분재 등의 각종 전시를 통해 조경수 소비와 판매를 촉진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정읍 조경수의 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45개 농가가 참여해 창립된 나무생산자 단체미협동조합은 수익사업으로 나무 이식, 전정 등을 대행하는 조경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읍 월곡리 뉴타운 어린이 집 개원

고창군은 31일 고창읍 월곡리 뉴타운단지 내에서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강수 고창군수, 박래환 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 학부모 및 어린이,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지난 2011년 4월 국비를 확보한 뒤 민가자본 유치에 노력해 국·도비 3억4200만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6억7000만원 등 모두 14억

7400만원을 투입했다.

면적적 674.49㎡의 2층 규모인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13명이 종사하며, 영유아 종일제 정원 85명, 시간제 11명, 휴일 15명, 시간 연장 15명 등 보육이 가능한 특수시설로,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로 월 12회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 급식비는 1000원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순창장류축제 300m 장아찌 김밥 31일 개막한 ‘제8회 순창장류축제’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와 이날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주민, 관광객들과 만든 300m 장아찌 김밥을 선보이고 있다. 이 김밥은 300만 관광객 유치를 기원하는 뜻에서 만들었으며, 이 축제는 오는 3일까지 계속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단신

### 남원시보건소 음식점 등 공공장소 금연 단속

남원시보건소는 4일부터 8일까지 공공장소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단속 이행 확인을 위한 제2차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15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가운데 민원 다발업소이며,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시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 전주지역 시내버스 20% 감차 운행 한달간 유보

오늘(1일)부터 20% 감차를 시행하려던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이를 한 달간 유보, 당분간 정상 운행된다.

신성여객·전일여객 등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들은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적자 보전금에 대한 사외회의 예산지원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20% 감차 운행 계획을 30일까지 유보하며, 적자 보전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2월1일부터 20% 감차를 단행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이유로 감차를 불허한 바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1000여명 참여 고창군 제4회 대산면민의 날 행사

‘제4회 대산면민의 날’ 행사가 31일 대산면민회(회장 신종원) 주관으로 고창군 대산농어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태봉농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체육발전유공자 및 대산면민의 장 시상, 민속경기 등의 순

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000여 명의 대산면민과 출향민들이 참여했다. 체육발전 유공자로 장관진(대산리)·최인숙(덕천리)씨 각각 선정됐으며, 애향장은 장연석(72)씨, 효열장에는 김순덕(여·54)씨가 각각 수상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군산시의회 나운동 송전탑 지중화 재개 촉구

군산시의회가 31일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나운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의 재개를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제173회 임시회 폐회와 함께 성명을 내고 “나운동 재개촉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주민, 관광객들과 만든 300m 장아찌 김밥을 선보이고 있다. 이 김밥은 300만 관광객 유치를 기원하는 뜻

한국전력은 군산변전소에서 나운동을 거쳐 군산의료원까지 1.8km구간을 세웠던 철탑 6기를 2010년 12월까지 지중화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곳은 1000여세대, 4000여명이 사는 군산지역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